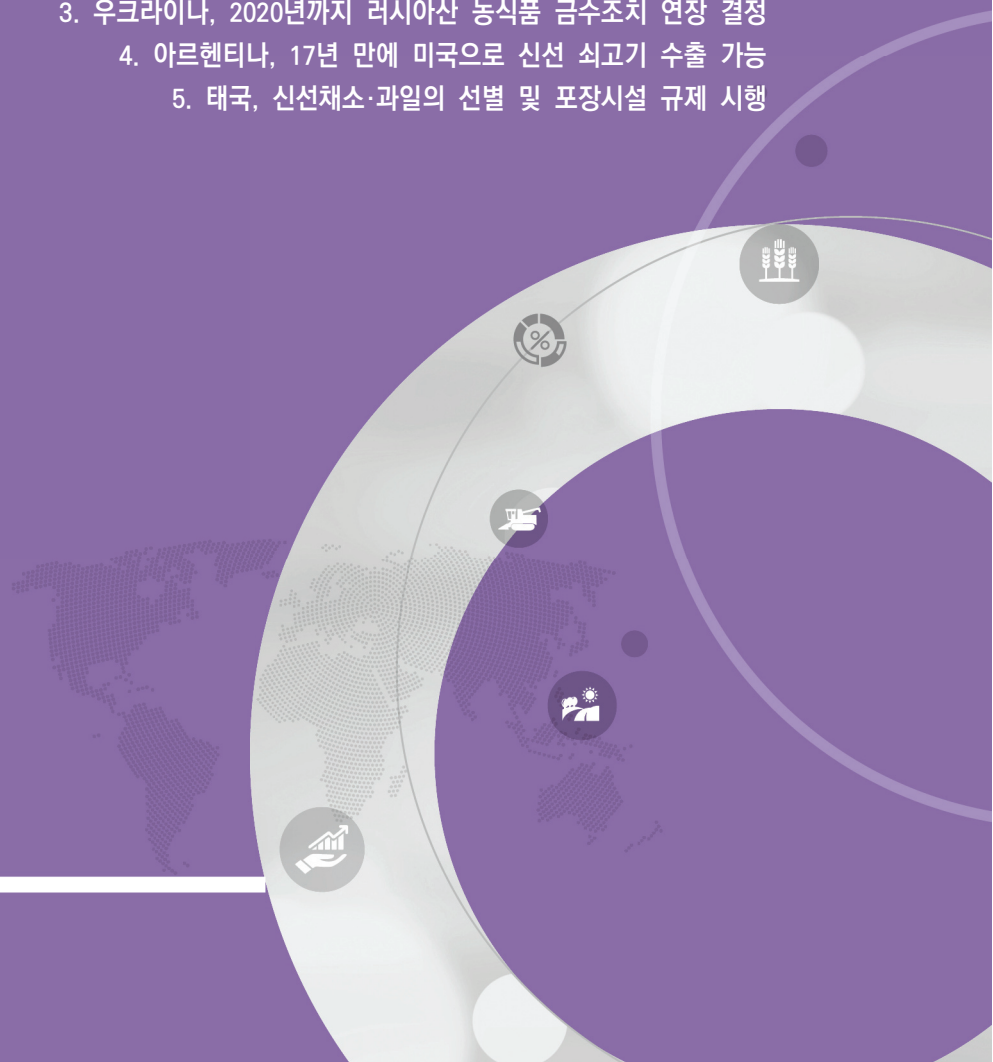
Part 5
국제 농업 정보

1. G20 정상회담, 식량안보·항생제 내성 억제·기후 변화 관련 공동성명
2. 미국 USDA, 농업 수출 확대 위한 2019년 무역 사절단 결성
3. 우크라이나, 2020년까지 러시아산 농식품 금수조치 연장 결정
4. 아르헨티나, 17년 만에 미국으로 신선 쇠고기 수출 가능
5. 태국, 신선채소·과일의 선별 및 포장시설 규제 시행





국제 농업 정보 (2018. 12)



G20 정상회담, 식량안보·항생제 내성 억제·기후 변화 관련 공동성명

G20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서명

❍ G20 정상들은 식량 안보,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확산,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전념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함.

❍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사람중심의 포괄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약함.

- G20 정상들은 일의 미래, 개발을 위한 인프라,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 그리고 G20의 모든 의제를 관통하는 성 주류화 전략 논의에 초점을 맞춤.

❍ 세계경제 전망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가 간 성장 동조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금융취약성, 현 무역 이슈, 지정학적 우려 등 일부 위험 요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인식함.

❑ 중국과 미국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교전 확대를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음.

- G20 국가 정상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새롭게 다짐함.

❍ 식량 안보 문제해결이 굶주림과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 데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서는 밝혔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리는 가족 및 소규모 농장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토양, 수자원 등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역동성을 증진시킬 것임.
- 우리는 혁신적이고 전통적인 농업부문의 관행과 기술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권장함.
- 우리는 위험관리 강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극심한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공하는 데 있어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우리는 부가가치, 생산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농식품 글로벌가치사슬(Agro-Food Global Value Chains)을 개선하며,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계획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부문, 과학계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노력을 강화할 것임.

❑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 성명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2030년까지 건강과 관련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실천 계획의 개발을 촉구함.

- 해당 성명서는 또한 항생제 내성 확산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여러 부문의 행동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세계적인 책임이 되고 있음.
- 10월 말, 유럽의회는 가축에 대한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승인하면서 6월에 이사회와 체결한 규정에 관한 합의를 원칙적으로 확인함.
- 새로운 규정은 감염의 임상 징후가 없을 때 예방조치로 단일 동물에게 항생제를 예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의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심각한 결과를 동반하는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정당화됨.

❍ 마지막으로 G20 정상들은 파리협정을 되돌릴 수 없다면 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함.

- 미국은 파리 협약에서의 탈퇴 의사를 반복한 한편, 모든 에너지 원천과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접근 및 안보, 환경 보호에 전념하고 단언하였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8530/G20-leaders-commit-to-food-security-limiting-AMR-and-tackling-climate-change) (2018.12.03.)

미국 USDA, 농업 수출 확대 위한 2019년 무역사절단 결성

❑ USDA, 무역사절단 결성 발표

❍ 미국 농무부(USDA) 무역 및 해외농업부문(Trade and Foreign Agricultural Affairs) 담당차관인 Ted McKinney는 5개 대륙에 걸친 7개의 무역사절단이 2019년에 결성될 것이라고 발표함.

- Ted Mckinney는 농업부문 무역사절단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잠재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함.
- USDA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의 마케팅 및 무역전문가들은 미국 농산물 및 식품 판매를 위한 잠재성이 높은 신흥시장 및 이미 확립된 시장 모두를 신중하게 선택함.
- 마케팅 및 무역 전문가들은 2019년에 대비하여 5개 대륙에 걸쳐 7개의 시장을 확보하였음.

❍ USDA FAS는 지난 2018년 간 과테말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을 기반으로 하여 무역관련 임무를 수행하였음.

- Ted Mckinney는 2018년 무역 임무를 통해 200개 이상의 미국 기업 및 기관들이 해외 구매자들과 3,000번 이상의 미팅을 성사시켰으며, 1년 간 1억 4,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그는 참여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해 참여자들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라고 함.

❍ 2019년에 예정된 임무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만(타이베이), 3월 11일-14일
- 캐나다(몬트리올, 토론토), 4월 2일-5일
- 콜롬비아(보고타), 6월 3일-6일(파나마 구매자 포함)
- 베트남(호치민시), 10월 14일-17일(미얀마의 버마와 태국의 구매자 포함)
- 케냐(나이로비), 10월 28일-31일(부룬디, 지부티, 에티오피아, 르완다,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의 구매자 포함)
- 멕시코(멕시코시티), 11월5일-8일
- 영국(런던)
- 위의 시장들 중 미국은 최근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개정하기 위해 멕시코 및 캐나다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NAFTA의 새로운 명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임(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사무국은 영국이 현재 진행 중인 브렉시트를 통해 EU로부터 탈퇴한 이후 무역협정을 위한 준비가 되자마자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8558/USDA-sets-2019-trade-missions-to-expand-US-ag-exports) (2018.12.05.)

우크라이나, 2020년까지 러시아산 농식품 금수조치 연장 결정

❍ 우크라이나는 2020년까지 러시아산 농식품에 대한 금수조치(embargo)를 연장함.
- 우크라이나 장관은 러시아산 농산물 및 식료품 목록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

❍ 우크라이나 정부가 2018년 12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러시아산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와 2015년까지 무관세로 수입되었던 특정 물품의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차별적이고 비우호적인 무역제재를 중단하지 않으면 2020까지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힘.
- 금수조치가 시행되는 러시아산 물품목록에는 쇠고기, 가금류, 돼지고기, 육가공품, 생선, 및 해산물, 유제품, 커피, 차, 제과류, 감자, 유아용 식품, 파스타, 소스류, 식품첨가물 및 향신료, 맥주, 주류 등이 포함됨.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무역은 2014년에서 2016년에는 가파르게 하락하였으나 2017년 양국 간의 교역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음.
-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의 수출은 10% 증가한 39억 3,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40% 증가한 72억 400만 달러를 기록함.

❍ 한편 러시아는 2018년 7월, EU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차를 2019년 12월까지 연장한 바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vu.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CO223944/Ukraine-extends-Russian-agrifood-embargo-until-2020) (2018.12.19.)

아르헨티나, 17년 만에 미국으로 신선 쇠고기 수출 가능

❍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11월 26일,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을 인가하는 위생 검사시스템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
- FSIS는 이미 지난 2015년 7월에 아르헨티나산 신선 쇠고기 수입을 허가한 바 있으나, 식육검사시스템이 미국의 위생기준과 동등한 인증 기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출이 실현되지 못한 것임.

❍ 이번 발표에 따라 아르헨티나 국가 농축산품위생관리기구(SENASA)를 통해 실시되는 검사시스템이 미국 위생기준과 동등성이 인정됨.
- USDA 위생기준의 동등성이 인정되는 아르헨티나 기업은 14개 사가 있음(2018년 5월 22일 기준).

❍ 이번 발표에 따라 소의 내장, 머리, 발굽을 포함하지 않는 뼈 없는 고기 중에서 연간 2만 톤(약 1억 5,000만~1억 8,000만 달러)의 대미 수출이 승인됨.
- 아르헨티나 농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신선 쇠고기 수출은 17년 만임.
- 2만 톤을 넘는 경우, 26.4% 추가관세가 부과됨.

❍ 아르헨티나 농업협회(SRA) 회장(Daniel Pelegrina)은 아르헨티나 육류산업에 있어 미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대미 수출이 결정됨에 따라 다른 국가로의 시장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함.

❍ 또한 G20 정상회담(11월 30일~12월 1일)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아르헨티나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은 “미국은 식품 및 쇠고기시장에서 주요 수입국으로 미국과의 교역은 큰 비즈니스 기회”라고 강조함. 또한 “아르헨티나는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일자리의 증가를 의미한다”며 미국시장으로의 쇠고기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

❍ 미국은 2018년 3월 23일, 개발도상국 및 지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일부 면제를 적용하는 일부특혜관세제도(GSP) 리스트에 아르헨티나를 6년 만에 추가함.

-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산 농산품 및 식품에서 약 500개 이상 품목이 미국 수입될 시 무관세가 적용됨.
- 2018년 1월부터 9월 대미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기 500개 이상 품목에 포함된 바이오디젤(HS271019)은 전년 동기대비 3.6배(1억 5,200만 달러), 과일 쥬스(HS2009)는 1.5배(1억 2,000만 달러) 증가함.

※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biznews/2018/11/5a768f4fe0caf237.html)
(2018.11.29.)

태국, 신선채소·과일의 선별 및 포장시설 규제 시행

❍ 태국에서 신선채소·과일 유통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본산 채소·과일 수입 지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

❍ 태국 보건국은 신선채소·과일의 잔류농약 문제 등을 토대로 2017년 8월과 9월에 선별 및 포장시설의 위생 관련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고시 제386호와 시행규칙을 공시함.

- 신선채소·과일의 농약 사용 규정을 준수하는 재배지에서 채소·과일을 입하하도록 함.
- 또한 위생적인 시설에서 선별 및 포장관리를 하는 동시에 출하·입하나 제조 등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도록 요구함.

- 판매 시에는 제조자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만 바트(약 34만 4,900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됨.

❍ 이번 규제는 신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25일부터 적용이 되며,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2019년 8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특히 기존 사업자들은 일본산 채소·과일의 수입 지속을 우려하고 있음.

❍ 일본에서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국제인정기구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AF)에서 인정된 조직·기관에서 'ISO22000'등의 인증을 얻거나 보건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정부 등의 행정기관에서 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음.

❍ 대상품목은 메론, 딸기, 오렌지, 배, 포도, 파, 토마토, 감자를 비롯하여 보건부 고시에 열거되어 있음.

- 태국 국내 생산 현황 등을 근거로 대상품목은 차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최근 태국에서는 일본의 채소·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사과나 딸기 등 일본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biznews/2018/11/7627d93e4388b6e7.html)(2018.11.29.)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